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어느 해와는 달리 2천년을 눈앞에 둔 마지막 해라는 특별한 의미도 지닌다. 그러나 지난해의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걱정만큼이나 인내가 필요함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사회대로,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저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첫단추를 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다짐을 지속시키는 일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설계와 각오를 다졌지만 이 모두의 다짐이 현대 어우러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 통해 들어보자. (편집자 주)

### 이렇게 들었다

■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대집비유왕경>

■ 보살들은 발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기에 빨리 열반을 얻는다. <기신론>

■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쯤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다. <불변니함경>

■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파사익왕에게 말씀하셨다. "먼저는 괴로우나 뒤

### 새출발 초발심은 씨뿌리는 것과 같다

에는 즐거운 것이 넷이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괴로우나 뒤에는 즐겁고, 쓴 약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즐거우며, 가업을 얻는 것과 혼인하는 것은 처음에는 괴로우나 뒤에는 역시 즐거운 일이다."

(중일아함경)

■ 높은 관직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육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 만약 사람들이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원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출생보리심경>

■ 초발심을 발한 보살이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과거로부터 활동해 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으며,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을 수가 있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살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다. 또 이 보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고 가르침을 받으며 행하고 체득하여 모든 부처님들의 공덕과 같게 된다. <화엄경>

■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여기 현재

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라.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따돌려 노력하라. <중아함경>

■ 보살이 생존 중 처음으로 발심할 때, 오로지 보리를 구해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일생 공덕이 깊고 넓어서 끝이 없을 것이다. 여래가 설하신 한 겁을 다 소비하신대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화엄경>

■ 허공은 두루 뒤덮지 아니함이 없나니, 보살의 발심도 이리하여 온갖 중생을 뒤덮지 아니함이 없다. 중생의 세계가 무량무변하여 다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보살의 발심도 무량무변하여 다함이 있을 수 없다. <발보리심경론>

■ 사람이 과수(果樹)를 심는 경우, 씨가 쓰면 과일 또한 쓰게 마련이니,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보를 받아 끝없는 고통을 거처야 한다. <보살처태경>

## 독자의 소리

### 냉정한 마음 거두고 포용하고 용서하자

이제부터는 냉정한 마음을 거두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이량과 겸손함을 가져줄 것을 진심으로 사부대중께 간청드립니다.

분개하고 질타하고 능멸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참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잘못된 이들을 권면해야 한다. 비행과 비법을 행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적나라한 상황 자체이며 내릴 수 없는 아픔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면서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의 경멸을 자못듯이 역만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비싼 스승들이 경책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각하자. 더크

### 고 더 넓은 자신이 되어간다면 이 또한 크 나른 수행의 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해월(공주 원호정사 주지)

### 승-재가 정재관리 조계사부터 시범운영

조계종이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무엇일까? 신도와 사문이 공동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문이 돈과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한다. 신도와 사문이 같은 비율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사찰을 운영하여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면 권력과 결탁할 수 있는 길은 자랄로 차단된다.

지금 당장 조계사부터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온 천하에 그 시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본사도 공동운영을 하도록 제도적으

로 장치를 마련하고, 매년 그들이 실행한 것을 성적으로 매겨서 공표를 해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은 조계사부터 공동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달마다 수입과 지출을 사부대중에게 공개하라. 조계종이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이평래(충남대 교수)

### 산사찾는 마음 편하게 하루빨리 조계종 안정

작은 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녀이다. 삶이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면 어김없이 산사를 찾는다. 풍경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푸른 향내음, 무엇보다도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기운들이 느껴진다.

불교의 교리를 빌려 표현하자면, 전생에 내가 부처님과 어떤 향기로운 인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특별히 아는 스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알고 지내는 불자들이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절이 좋고, 불교신자라고 하면 반가움이 앞선다.

오늘도 햇살은 따듯한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풍경은 참 어수선하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스님들의 긴장과 심란함, 하루빨리 조계종이 안정되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여 나처럼 산사를 고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삶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이 계속되어 주기를 바란다. 김미리아(수녀)

### 총무원 청사 새로 짓자

조계종 총무원청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 가운데 하나다. 현재의 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 불이 붙어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싫은 장면들이 떠오를 것이다. 불교와 조계종 총무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얼룩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청사를 헐고 새로 짓기를 바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불교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가고 있다. 마침 조계사에서 주변 부지를 다량 매입해 전체적인 도량 배치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미안하면 서울의 한복판에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새로 세울 몇 가지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여기에 얼룩진 불교의 이미지를 씻으라는 목소리도 높다.

94년 개혁회의 출범 이후 불교회관을 짓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총무원과 조계사 소임자스님 몇 분만 참여했다. 이제는 재가자 가운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도 참여시켜 범불교적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올리는 일이 아니다. 본래면목의 불교모습을 회복키 위한, 그리고 21세기에 걸맞는 불교를 세우는 분사이기도 하다.



법경스님  
분당 기원정사 주지

### 고은의 '새아침 칼럼'을 읽고

#### "한국불교의 허물 통렬히 비판"

참으로 무참한 심정으로 고은 선배님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불교를 통렬하고 정확하게 비판하신 고은 선배님의 질책을 뇌성벽력과 같이 큰 소리로 들었습니다.

같은 선배님은 일찍이 뜻한 바 있어 환속을 하셨지만, 이 포교승은 어찌할 바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승려가 복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했어도, 목물옷에 파르르니 꾸는 머리로는 길을 다닐 굳센 용기도 의지도 없어서 검은 운동복에 털모자 쓰고 다녔습니다. 이 포교승은 그만 과거를 지우고 말았습니까. 속복을 입고 절 밖 대로를 다녔습니까... 큰(?)스님들은 싸우실 때도 가사장삼을 수하셨건만...

우리가 금강경 강의를 끝낸 날 선배님은 금강경을 땅 속에 파묻으셨습니다. 선지식이십니다. 어차피 부처님께 서는 '지아설법 여불유자(知我說法 余復遺者,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버려라)'라 이르셨거늘 딱히 잘못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댓목을 타고 달아야 할 곳이 아니라 장안인 듯해서 이제는 무엇을 타고 건너도록 가르쳐야 할지, 여러 날 밤을 곤두새우는 회화가 되었습니까. 해광(인천 불미니유치원장)

#### "한겨울 일몽에 끼얹은 물벼락"

현대불교신문 1월 6일자 고은선생의 '새아침 칼럼'은 눈을 열어주고 대중의 안일함을 깨우쳐주는 장군족 비였다.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과 칼럼에 대해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

"오늘의 불교관은 걸치레, 권위의 소송일 뿐이다. 전혀 정진의 계행 없는 수작을 대승으로 장식한 것이다. 이런 거짓된 대승은 망승(亡承)이다." 겨울 새벽 알몸에 끼얹은 물벼락이다. 도재근(대구 고성동)

## 제언

### 본사단위 수련시설 시급



조건균  
전국교사 불자연합회 사무총장

한 재가단체의 사무총장으로 회원들의 수행과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주고 도움을 주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 많은 재가자들은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가 기록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개탄하면서도 세간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수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사찰의 수련법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사찰에서 생활을 해보면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많은 사찰에서 수련법회를 실시하여 재가불자는 물론 타종교인까지도 불교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겨울에는 수련법회의 기회가 드물고 또 단체별로 신청하는 수련법회를 받아들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1백명만 넘어도 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각 사찰에서는 이제라도 많은 재가불자들이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찰이 어렵다면, 본사 또는 몇 개의 본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사찰도 성교육 장소로

그러나 캠프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지부가 세 곳의 사찰과 접촉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난관에 부딪혔다. 하나 같이 '성(性)'이라는 한마디에 난색하거나 결연적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세 사찰은 "신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포교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을 관리할만한 인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요즘 청소년의 성적 탈선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성문화대학위원회를 조직한 것도 벗어나는 청소년의 성정숙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gobaou@buddhapia.com)

그러나 불교계는 '성(性)'이 산문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다. 불교와 '성'은 한 자리에 설 수 없는 불멸의 '금지(禁忌)'로 여겨지고 있다. 매춘여성의 재할에 관심을 갖는 스님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성'에 대한 불교계의 깊은 편견을 말해준다.

성문화캠프는 경기도 가평 약속의섬에서 성공적으로 회향했다. 그러나 절집 행사는 절 밖에서 열렸고, 국회의원은 참석했지만 스님은 그 곳에 없었다. 불교계가 청소년 포교와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둔다면 '성'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 1부 기자)

구립 28~30일 개최된 청소년교화연합회(이하 청교연) 인천지부의 제1회 성문화캠프 '아우성-청소년과 함께 나누는 성(性) 이야기'는 사찰에서 열려야 했던 캠프다. 적어도 인천지부가 처음에 캠프장으로 생각했던 곳은 도심과 가깝고 70여명의 청소년들이 2박3일 동안 먹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찰이었다.

## 大韓佛敎 觀音宗 第四世 宗正 雲湖堂 大天 大宗師 四九齋 追慕法會 案內

大宗師께서 創建하시고 主席하신 論山 觀音寺 大雄殿에서 佛紀 2543年 1月 21日 (음 12月4日) 午前 11時 49齋 追慕法會를 奉行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총무원 (02) 763-3109 관음사 (0461)735-3144

1999. 1. 21(음 12. 4)

大韓佛敎 觀音宗

總務院長 李泓坡 合掌

##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찰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겨울 선 수련회
- 기간 : 1999년 1월 1일(토) - 20일(수), 3박 4일, 수련비 5만원
- 장소 : 성북동 길상사(법보전)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1999년도 1박 2일 주말 수련회 계획 (수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차수	기간	대상	회비
제1차	1월23일(토)~2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2차	1월30일(토)~3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3차	2월 6일(토)~ 7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4차	2월13일(토)~1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5차	2월20일(토)~2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6차	2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입제:토요일 오후 2시 30분 · 회향:일요일 오후 8시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②생년월일, 성별③주소④연락처 전화번호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⑦수련회 동행 소견(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 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 자원봉사자 동행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 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 해명서

삼가 오늘의 종단사태에 대하여 본사주지 연합회장으로서 국민과 사부대중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참회드립니다.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수행 부족을 통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종단이 혼란에 빠져들었고, 혼란이 분규로 치달았으며 분규가 전종도의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드렸고 급기야는 불교자체가 돌팔매를 맞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다시 정도를 걸어야 하겠습니다.

본사주지 연합회에서는 논리를 떠나서 종단과 불교에 상처받지 않는 이해와 용서, 포용으로 화합된 모습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수행과 부덕함의 탓으로 원만한 사태해결에 보탬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총무원장 선거를 무사히 마치고 고산스님을 종단의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메스컴과 언론에 의해 수덕사가 정화개혁의 축이라는 보도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본사주지연합회장으로 종단과 우리 불교가 덜 상처입는 길을 모색하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적극적인 지원과 동행이 부족했음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할 수 있지만 수덕사가 정화개혁의 축이라고 한 부분은 저의 본뜻과 본사주지 연합회, 수덕사를 심히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명하는 바입니다. 역량의 부족으로 종단을 화합으로 이끌지 못하고 보니 매리는 시어머니 보다 딸리는 시누이가 더 밟고하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고산 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종단이 하루 빨리 안정과 화합의 자리를 찾도록 본사주지 연합회와 수덕사에서는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새로운 불씨가 잉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에 해명의 글을 드립니다.

불기 2542년 12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본사주지 연합회장  
덕충총림 수덕사 주지 김 법장 합장